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당국 “참여하면 누구든 사형”

인터넷·국제전화 끊고 강경 진압

65명 사망·2천500명 구금 추정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에도 반정부 시위가 2주째 격화하는 양상이다.

시위에 가담하면 누구든 사형에 처할 것이라 는 엄포에도 시위가 계속되면서 사망·구금자도 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모바해디아자드 이란 검찰총장은 이날 국영 TV에 발표한 성명에서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신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혐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위대를 도운 사람들도 같은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국가를 배신하고 외세의 지배를 꾀하는 자들을 지체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관용·연민이나 봐주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 수호는 레드라인”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란 군도 “국가 이익과 전략 인프라, 공공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며 강경 진압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잇달아 발표된 당국의 성명은 이번 반정부 시위를 불법·안보 위협 행위로 규정해 대응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정부의 위협에도 시위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AFP 등이 입수한 시위 영상에는 시민들이 냄비 등을 두드리며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등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경적을 울리며 지지를 표시하는 차들도 있었다.

당국과 시위대 충돌이 이어지면서 사망·구금자도 늘고 있다.

이란 북서부 지역의 한 의사는 로이터에 전날부터 많은 부상자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전했다. 한 병원에서는 실탄에 맞은 20명이 후송돼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전날 기준 시위대 50명을 포함해 총 65명이 사망



지난 9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모스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소셜 미디어 영상 캡처. 이란 국영 언론은 모스크가 불에 탔다고 보도했다. /REUTERS=연합뉴스

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 집계된 수치보다 3명 더 늘어난 것이다. 노르웨이 인권단체 행가우에 따

르면 2주간 구금된 시위대는 2천500명으로 추산된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시위대 공격으로 이란 법 집행 요원 2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AI)는 “당국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강화하고 있다는 참담한 보고를 분석 중”이라며 강경 진압으로 사망·부상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국제전화·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있어 실제 피해 상황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는 당국의 인터넷 차단을 겨냥해 “학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란의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과 그의 동료 모하마드 리술로프 감독도 통신 차단 조치를 “가장 노골적인 탄압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당국이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한 상태에서 시위대를 더 잔혹하게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시내가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시위대의 폭력성, 정부군 피해 상황

을 집중 부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몰락한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의 목표는 도심을 장악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레비는 최근 SNS를 통해 선동을 주도하면서 이번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에 우려를 표하며 연일 자체를 촉구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SNS에 “미국은 용감한 이란 국민을 지지한다”고 썼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를째 시위대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프랑스·영국·독일 정상들도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 당국의 자체를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경제난에서 족발됐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응축된 분노가 폭발하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중심의 이란 신정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 속 ‘암흑 선단’ 유조선 복귀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사실상 석유 통제에 나선 가운데 앞서 ‘그림자 선단’으로 의심 받던 유조선들이 속속 베네수엘라 해역에 돌아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선박 주적 서비스 텐카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달 초 위치 송신기를 끈 ‘다크 모드’(차단 상태)로 베네수엘라를 떠났던 유조선 중 최소 6척이 베네수엘라 해역에 돌아왔다.

로이터 통신은 베네수엘라에 돌아온 유조선 대부분이 화물을 적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들 선박에는 최근 베네수엘라 복귀 중 미군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상투미 프린시페 선적 유조선 ‘올리나’가 포함되어 있다.

원래 ‘미네르바 M’이라는 이름을 썼던 ‘올리나’는 러시아산 원유 운송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작년 1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다.

불법으로 제재국 원유를 나르는 ‘그림자 선단’으로 의심받는 유조선들이 화물을 실은 채 출발지로 복귀한 것은 멜시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군사적 압박 속에서 사실상 미국의 석유 통제를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무기한 통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대신해 원유를 시장에 ‘시세’로 팔고 수익금

을 베네수엘라와 ‘나눠 갖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그간 제재 때문에 팔지 못하고 저장고와 유조선에 쌓아둔 원유 3천만~7천만 배럴부터 넘겨받아 국제시장에서 판매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슈퍼맨 초판본 219억원에 팔려

한때 할리우드 배우 니컬러스 케이지가 소장했던 ‘슈퍼맨’ 코믹스의 1988년 초판본이 역대 최고가인 219억원에 팔렸다.

10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미국 뉴욕의 만화 전문 경매 업체 메트로폴리스 컬렉터블스·코믹카넥트는 익명의 수집가가 1988년 ‘슈퍼맨’ 초판본 만화책을 1천500만달러(약 219억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만화책으로는 “사상 최고가”라고 업체는 전했다.

이 만화책이 출시됐을 당시 가격은 10센트였다.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해도 2달러25센트(3천200원) 정도다.

이번 거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구매자, 판매자 모두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초판본은 슈퍼맨이 최초로 등장한 만화책으로, 20세기 중반 슈퍼히어로 장르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존재하는 ‘슈퍼맨’ 초판본은 100부 미만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ICE총격’ 美 전역 시위…29명 체포·경관 1명 부상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평화시위 당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에 3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전역에서 벌어졌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밤 약 1천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29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밝혔다고 A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오하라 국장은 시위대가 얼음과 눈, 돌 등을 던지는 등 과격한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얼음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시위는 주말 전국으로 확산됐다. 시민단체 ‘인디비저블’은 텍사스, 캔자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플로리다주 등 미 전역에서 ‘ICE 영구 퇴출’을 구호로 내건 시위 수백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고 예고했다.

팀 월즈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 정치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에 반발하면서도 평화 시위를 호소하고 나섰다.

월즈 주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는 수천명의 무장 요원을 우리 주에 투입했고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10일(현지시간) 열린 이민세관단속국(ICE) 항의 시위에서 한 여성이 ‘ICE 영구 퇴출’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앞서 이번 사건이 공포·갈등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트럼프 대통령의 ‘리얼리티 TV’식 통치’의 결과라고 비난한 월즈 주지사는 “이제 그는 혼란이 그 짐작한 행동을 덮기 위해 바라고 있다”며 “그가 원하는 걸 주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중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그

것이 바로 트럼프가 원하는 바”라며 “그는 우리가 ‘미끼’를 물기를 바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한 오마르 켈리 모리슨, 앤지 크레이그 등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주 연방 하원 의원 3명은 이날 오전 미니애폴리스 연방 청사의 ICE 시설을 시찰하려 했으나, 출입 10분 만에 퇴거를 요구받았다.

/연합뉴스

남도
밥상

을
지
키
는
사
민
들

최자명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 광주매일신문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 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염전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